

일본, 석유화학 수출 “승승장구”

2004년 상반기 수출 112만5200톤 달성 ... 아시아 시장 활황 덕분

일본의 석유화학제품 수출 및 수출 초과폭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.

일본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화학과가 발표한 2004년 1-6월 석유화학제품의 에틸렌(Ethylene) 환산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, 수출은 112만5200톤으로 분기별로 과거 최고수준을 기록해 수출 초과폭이 94만4200톤으로 상반기 최고기록을 수립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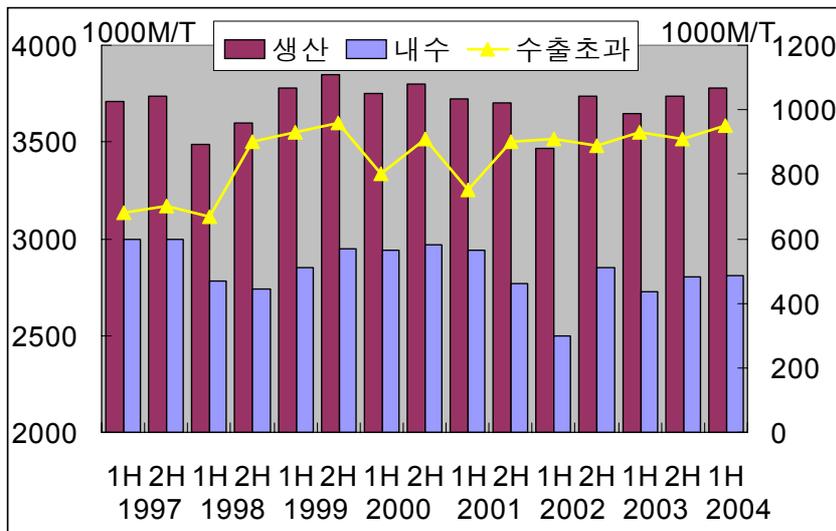
하반기를 포함한 분기별도 보더라도 과거 최고였던 1999년 하반기 95만5800톤에 이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. 2003년 하반기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이 활황을 띠면서 아시아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.

일본 국내수요도 전년동기대비 3.7% 증가한 282만8400톤으로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.

최근 몇년 동안 일본의 에틸렌 시장은 생산량의 약 30%를 수출하는 한편, 수입은 국내수요의 7% 내외 수준에서 움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.

2004년 상반기에도 비슷한 경향이 이어져 에틸렌 생산이 377만2500톤으로 전년동기대비 3.4% 증가해 수출 및 수출 초과폭이 과거 최고수준으로 확대됐다.

일본의 Ethylene 생산·내수 및 수출초과폭 변화



다만, 2004년 들어 에틸렌은 더 이상 증산할 수 없는 풀가동 상태가 계속돼 국내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도제품 단계에서 수출용을 줄이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. 따라서 잠재적인 수출수요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.

2004년에는 Polyolefin을 중심으로 범용 합성수지 수입관세가 일률적으로 6.5%로 인하됐기 때문에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세계적으로 석유화학제품 수급밸런스가 타이트해 국제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수입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4/09/13>